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19일 촉구안 발표

“제주 특수성·미래산업 포함돼야”

마사회·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관 유치 역량 결집
제주 유치 논리·당위성 알리며 범국민운동으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핵심 공공기관 제주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

도의회와 도내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 유관단체, 도단위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도민운동본부는 올 2월 출범한 뒤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제주 유치논리와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문대림·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각 정당 도당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한규 국회의원,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김상균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공동대표와 도의원,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 혁신도시인근 주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공동대표 7명은 공공기관 이전 촉구안을 함께 발표하며, 앞으로 마련될 정부 이전계획에 제주의 특수성과 미래산업 전략이 반영되고 제주가 희망하는 기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별 유치 논리와 실행계획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하고, 현재의 범도민운동본부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본부로 넓혀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뜻을 모아 제주의 산업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6개 기관(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중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꼽아 이전 논리를 강구하는 등 제주 이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위성곤 지사는 최우선 유치기관의 제주 이전 당위성을 설명했다.

위 지사는 “고려시대부터 대한민국에 말을 공급해온 곳이 제주이고, 지금도 전국 경주마의 90%가 제주에서 나온다”며 “말산업과 말생산의 중심지인 제주에 한국마사회가 자리잡는 것이 국가 말산업을 키우는 길”이라며 한국마사회 이전을 희망했다.

위 지사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전을 제외하면 전국 지방공항 모두와 연결된 곳은 제주뿐”이라며 “제주공항을 축으로 항공연관 산업을 끌어들여 제주의 성장엔진인 항공우주산업과 이어가려면 한국공항공사가 제주로 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위 지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유치에 대해 “제주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10년 뒤 마주할 과제를 먼저 겪고 있다”며 “평가원의 연구개발과 기획, 평가 역량이 더해지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전력망 안정화 문제를 함께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해 2027년부터 선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지난 19일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4회 제주바다 그리기 대회에서 어린이들이 공동도화지에 색을 입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화지 속 제주바다 ‘행복’으로 빛났다

‘제주바다 그리기 대회’ 19일 이호테우해수욕장서
올해로 4회째… 자연환경 소중함 생각하는 자리로
아이·어른 350명 참가… “바다서 저마다 꿈 키우길”

도화지 위에 펼쳐진 제주바다가 색색의 빛깔로 일렁였다. 지난 19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열린 ‘제주바다 그리기 대회’에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제주바다를 담아냈다.

≫ 관련기사 5면·화보 12면
한라일보가 주최·주관하는 ‘제4회 제주바다 그리기 대회’가 이날 개최됐다. 제주바다는 물론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대회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개발공사,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부영그룹이 후원했다.

대회 시작 전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에는 아이 손을 잡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당일 현장 접수의 문을 열어두면서 제주 여행길에 들른 관광객 등도

함께했다. 올해 대회에는 사전 접수 150명을 비롯해 모두 35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개회식이라는 형식을 건어내고 참가자들에게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을 알렸다. 준비물을 받아든 참가자들은 모래사장 위에 설치된 천막 아래 자리를 잡고 ‘바다’를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 세계를 펼쳤다. 텐트와 돛자리를 펴고 그림을 그리며 나들이를 즐기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선선한 초가를 날씨 속에 부는 바닷바람이 모두를 반겼다.

행사장에 설치된 아이 키만 한 도화지는 ‘공동 작품’이 됐다. 참가자들은 한라산과 해녀, 감귤 등의 밑그림이 그려진 종이 앞을 분주히 오가며 다채로운 색으로 제주를 물들였다. 또 다른 부대 행사인

풍선 아트도 인기를 끌었다. 대회는 ‘제주바다’, ‘모두가 행복한 대회’를 내걸고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진행되다 올해부터는 제주시로 장소를 모아 집중도를 높였다.

대회 현장에서 작품을 완성해 제출한 모든 이들에게 우편으로 상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그리기 대회’라는 이름에도 1·2·3등 순위를 매기는 대신 최선을 다한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한욱 한라일보 사장은 “그림 그리기 좋은 날씨 속에 많은 가족들이 찾아줬다”며 “‘바다 사랑’은 물론 ‘가족 사랑’의 의미까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심과학 K-water 제주지역협력본부장도 이날 행사장을 찾아 “바다는 아이들의 꿈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며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꿈이 그릴이 되는 경험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도, 27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 실시한다.

이번 절기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약 27만명이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21일부터, 어르신은 접종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로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한편 정부는 전국에 지난 11일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렸다. 위영석기자 yswil968@ihalla.com

해경 함정 운항 중단 위기… 4면 / 제주형 체육고 설립 검토 본격… 5면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등 안내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 설정,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연장, 가족관계 작성·정정 기간 연장 안내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9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안내

- 신고 기간 : **2027. 2. 1. ~ 7. 31.(6개월)**
- 신고자 : 희생자 및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 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신고 서류 : 희생자 및 유족 신고서, 증빙자료
 - 희생자 신고 증빙자료 : 보증서 또는 국가기록 수형자료
 -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제출
 - 유족 중 4촌 이내 방계혈족 신고 증빙자료 : 보증서 및 관련 사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친족 2인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 ※ 외국거주자로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2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2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보상금 대상자, 신청 안내(연장)

- 신청 기간 (당초) **2026. 12. 31 까지 ⇒ (연장) 2029. 12. 31 까지**
- 신청자 : 희생자, 민법을 준용한 희생자의 상속인
- 보상금액 : 사망·행불 9천만원, 후유장애인(5천만원 ~ 9천만원), 수형인(3천만원~9천만원)
- 신청 서류 : 보상금 지급결정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보상금 청구 서류 : 보상금등 지급청구서,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임양신고 특례 결정 신청 안내(연장)

- 신청 기간 (당초) **2026. 08. 31 까지 ⇒ (연장) 2028. 08. 31 까지**
- 신청인 : 희생자의 유족 등(신청사항별로 상이)
- 신청사항 : ① 제적부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②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③ 희생자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 ④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⑤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신고 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자료 등

4 접수 및 문의처

- 도내 거주자 ☞ 방문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1~1965)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3991~3994)
 - 제주도내 읍면동 4·3업무담당
- 도외·국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희생자 신고(064-710-8434)
 - 보상금(064-710-8450), 가족관계 작성·정정 (064-710-8440)
- ※ 우편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